

중국, 산업생산 증가율 9% 붕괴

8월 8.9%로 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둔화 ... 고정자산 투자도 부진

중국의 8월 산업생산량 증가율이 3년여 만에 처음으로 9% 이하로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산업생산량이 전년동월대비 8.9% 상승했다고 발표했다.

8월 산업생산량 증가율은 7월 9.2%보다 다소 둔화한 수치로 200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9% 아래로 밀렸고 전문가들의 예상치 9%에도 미치지 못했다.

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대비 20.2% 증가했으나 2011년 1-7월 투자증가율 20.4%에 비해 둔화했다.

반면, 8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13.2% 증가해 7월 13.1%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,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소매판매도 전년동기대비 14.1% 늘어났다.

8월 전력 생산량은 4373억KWH로 전년대비 2.7% 상승했고 7월 생산량 4351억KWH에 비해 0.5% 높았다.

정유 처리량은 2011년에 비해 1.5% 상승했다.

세계 2위의 원유 소비국인 중국은 8월 석유정제 생산량이 3774만톤으로 7월 3760만톤에 비해 14만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9/10>